

接觸性 皮膚炎에 對한 韓方的 考察

金倫範* · 金中鎬* · 蔡炳允*

I. 緒 論

社會가 複雜해지고, 皮膚疾患에 따른 外用藥劑의 使用 頻度가 늘어가고 있으며, 外部物質 接觸에 의한 接觸性 皮膚炎의 發生이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다¹⁾.

皮膚는 觸感할 수 있는 器官으로, <素問欬論>⁹⁾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와 <素問皮膚論>⁹⁾ “皮者 脈之部也 邪客於皮則腠理開 開則邪入客於絡脈 絡脈滿則注於經脈 經脈滿則入舍於臟腑也 故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靈樞本臟篇>¹⁰⁾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肥 理司開闔者也”라 하여 皮膚와 肺, 氣, 血 等과의 密接한 關係를 말하였고, 特히 衛氣는 皮膚와 分肉之間에 循環하여 汗孔開合과 外邪 防禦作用을 說明하여 疾病 發生이 衛氣의 盛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外界의 接觸 刺戟으로 發生하는 皮膚疾患은 漢方 文獻에서는 漆瘡^{1, 7, 8, 18, 19, 20, 23, 25, 27, 29, 30)}, 馬桶癬^{18, 20, 23)}, 狐尿刺^{1, 7, 18, 19, 27)} 등으로, 個人의 體內 生理的, 病理的 狀態에 따른 瘡癩證의 發生은 血風瘡^{1, 7, 20, 25, 27, 30)}, 火赤瘡^{1, 7, 25, 27, 29)}, 등의 範疇에 包含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現代醫學에서는 刺戟性 또는 알레르기性 接觸皮膚炎으로 說明하고 있다^{18, 20, 23)}

이에 本人은 接觸刺戟으로 因하여 發生되는 諸 皮膚疾患증 漆瘡, 狐尿刺, 血風瘡, 火赤瘡를 中心으로 文獻의 收錄된 바를 調査하여, 現代醫學

에서 말하는 接觸性皮膚炎과의 比較檢討를 通해 이 疾患들에 대한 意義 있는 結果를 얻었으므로 보고 하는 바이다.

II. 資料 및 研究方法

1. 資料

文獻 32種을 選定하여 漆瘡, 火赤瘡, 狐尿刺, 血風瘡 및 接觸性皮膚炎에 關하여 收錄된 內容을 拔萃引用 하였다.

2. 研究 方法

- 1) 接觸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諸皮膚疾患을 病因과 症候로 整理 하였고, 治法, 治方은 除外 하였다.
- 2) 病因과 症候를 通해 西洋醫學的 接觸性 皮膚炎과 比較檢討 하였다.

III. 本 論

1. 黃帝內經^{9, 10)}

<氣交變大論>

歲木不及 復則炎暑流火 濕性燥病 寒熱瘡瘍

<皮膚論>

皮者 脈之部也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邪入 客於絡脈 絡脈滿 則注於經脈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經脈滿 則入舍於臟腑也 故皮者 有分部不與 而生大病也

〈陰陽應象大論〉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

〈宣明五氣篇〉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痿論〉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脈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

〈欬論〉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五臟生成論〉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本藏篇〉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肥 理 司開闔者也

〈瘡論〉

衛氣之所在 與邪氣相合則病作

2. 諸病源候論²⁰⁾

漆瘡候

漆有毒 人有稟性畏漆 但見漆 便中其毒 喜面痒然後 胸臂脛膕 皆悉癢痒 面爲起腫 纒 眼微赤 諸所痒處 以手搔之 隨手掣展起赤 瘡瘡瘰癧 消已生細粟瘡 甚微有中毒 輕者證候如此 其有重者 遍身作瘡 小者如麻豆 大者如棗杏 膿癩疼痛 摘破小定有小瘡 隨次更生若火燒 漆其毒氣 則腐著人急重亦有性 自耐者終日 曬煮竟不爲害也

血瘡候

血瘡者云 諸患風濕搏血氣 而生瘡其熱氣 發逸瘡但出血者 名爲血瘡也

3. 六科準繩²³⁾

皮部屬肺經 云肺之合皮也 榮毛也 又云肺主皮毛 在臧爲肺 在體爲皮毛是也 毛折爪枯 爲手太陰絕

經云手太陰者 行氣溫於皮毛者也 氣不榮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皮絕者 津液既去 則爪枯毛折者 毛先死矣

4. 醫學入門²⁷⁾

血風瘡

血燥風熱鬱 初發疙痞 或如丹 瘙痒抓破 痛有水 妄投風藥 血益慳

註)血風瘡 乃三陰經 風熱鬱破成瘡 膿水淋漓 內證 喘熱 盜汗 惡寒 少食 體倦

5. 東醫寶鑑⁸⁾

漆瘡

人有惡漆者 因見漆中毒生瘡 面痒而腫 遍身癩痛

6. 外科正宗³⁰⁾

漆瘡

漆瘡有來自異 有感而弗感也 俗稱木生人感之非也 但漆乃辛熱火象有毒之物 人之皮毛腠 理不密 故感其毒 先發爲痒 抓之漸似癩 疹出現皮膚 傳遍肢體 皮破爛斑 流水作痛 甚者寒熱交作 不然變爲頑癩 癬 癩 愈而又發者多矣

血風瘡

血風瘡 乃風熱 濕熱 血熱三者交感而生 發則搔痒 無度 破流脂水 日漸沿開

7. 醫宗金鑑²⁵⁾

漆瘡

漆瘡感受漆毒生 腠理不密腫癩紅 初發貫痒後如疹 皮破流水更兼疼

註)此證由人之 腠理不密 感漆辛熱之毒而生 初發面痒而腫 抓之漸似癩疹 遍傳肢體癩痛 皮破爛斑流水 甚者寒熱交作

火赤瘡

火赤瘡由時氣生 癩漿水泡遍身成

註)此證由心火妄動 或感酷暑時臨 火邪入肺 伏結而成 初起小如 芡實 大如棋子 燎漿水泡 色赤者為火赤瘡

血風瘡

血風瘡證生遍身 粟形搔痒脂水淫 肝肺脾經風濕熱久鬱燥痒 抓血津

註)此證由肝 脾二經濕熱 外受風邪 襲于皮膚 鬱于肺經 致遍身生瘡 形如 米搔痒無度 抓破時 津脂水浸淫成片 令人煩躁 口渴 搔痒 日輕夜甚

8. 萬病醫藥顧問²⁷⁾

漆瘡

感漆之毒 其人腠理不密 感漆辛熱之毒 鬱滯肌膚 初發面痒而腫 抓之漸似癩疹

色紅 遍傳肢體焮痛

火赤瘡

時臨火邪 心火妄動 或感酷暑 時臨火邪 入肺伏結 發於全身 初起小如黃實 大如棋子 色赤

血風瘡

肝脾濕熱壅結 肝脾二經 濕熱壅結 復外受風邪 襲於皮膚 鬱於肺經 致遍身生瘡 形如粟米 搔痒無度

狐尿刺

誤觸螳螂精汁 螳螂感暑交媾 精汁染於諸物 乾久有毒 人手足誤觸之 毒染肌膚 發紅紫斑點 肌膚乾燥

多生於手足 初起紅紫斑點 肌膚乾燥 悶腫 焮痛不眠 十日後腐開

9. 外科大成²⁹⁾

漆瘡

漆瘡初時發痒 形如 癩疹 次則頭面虛腫 遍體破爛 流水 作痛似癩 甚則寒熱交作 由新漆辛熱有毒 人之秉質有偏 腠理不密 感其氣而生也

火赤瘡

初起赤色燎漿膿泡 黃水浸淫 痛如火燎

10. 中醫外科學²⁰⁾

接觸性皮膚炎是人體在過敏狀態下 因接觸到某種物質而發生的急性皮炎 好發于暴露部位 中醫所稱的“漆瘡”和“膏藥風”俗稱的“馬桶癬”等 皆屬本病範圍

〈病因病理〉

人體在過敏狀態下 皮毛腠理不密 接觸某種物質 致使皮膚受損 邪熱與氣血相搏而成本病

〈臨床表現〉

發病前有某種物質接觸史 初次發病者 潛伏期一般在 4-5天以上 如再接觸而發病者 則在數小時或 1 天內即可發生 皮疹好發在顏面 頸項 腕關節周圍等 露出

部位 嚴重的可蔓延到全身 在接觸部突然發生潮紅、腫瘡、丘疹、大水疱、糜爛滲液、皮損形態隨接觸物如由膏藥引起 則皮損為圓形 原因去除後可在數日或 1-2 週內治愈

11. 中醫學問答²³⁾

漆瘡是因接觸漆而引起的急性皮膚病 漆氣辛熱有毒 脾虛濕熱內蘊者 或稟性不能耐受漆氣者 接觸漆及聞到新漆氣味便可中毒 南方多漆樹 稟賦特異的人 夏日在漆樹下乘涼 或弄破漆樹汁或樹皮 漆汁外溢 觸到漆汁 嗅到漆味而發

本病是因接觸漆毒引起的 所以皮損首先見于顏面、肩、四肢等暴露部位 漆氣辛熱侵犯皮膚 初為紅斑 繼則出現水腫、丘疹、水疱、甚至大疱、熱盛皮膚水疱破後有

爛脂水外溢 如發生在眼瞼、陰部、肛門等柔軟的組織部位 有明顯的水腫 如氣血虛弱之人 對漆特別敏感者 接觸漆後 皮疹不僅 限于局部 可出現在其他部位 有不同程度的瘙痒 灼熱感嚴重的則有痛感 并伴有 怕冷、發熱、頭痛、惡心、全身不活、飲食不香、舌質紅、舌怠薄白、脈象細數等全身症狀 亦有不顯全身症狀 假接觸部位有皮疹者 如長期坐馬桶皮疹 限于臀部等

12. 實用中醫外科學¹⁶⁾

接觸某些外界物質 而在皮膚或粘膜上因過敏或強烈的刺激所發生的一種皮炎 叫接觸性皮炎 相當于中醫的“漆瘡”“馬桶風”“膏藥風”等 中醫文獻中的“狐尿刺”也 類似 本病 如《千金翼方》中設：“凡諸螻蟻之類 盛夏之時多有孕育 著諸物上 必有精汁 其汁媾則有毒 人手觸之----則成其疾” 常見的外界物質 有強刺激作用

13. 東醫學辭典¹⁾

漆瘡

옷독에 의하여 생기는 皮膚病. 皮膚에 옷독이 들어와서 생긴다. 甚한 것은냄새만 맡아도 생긴다. 옷나무나 옷칠감, 옷칠기구와 接觸한 후 1時間을 前後하여 或은 數日 안에 얼굴 등 露出된 接觸部位에 熱感, 가려움이 생기고 연이어 벌겍게 부으면서 丘疹, 물집이 나타난다. 긁으면 진물이 난다. 얼굴이 더 甚하고 熱나기, 머리아픔, 便秘, 睡眠障礙等 全身症狀이 동반될수 있다.

血風瘡

濕疹의 하나. 몹시 가렵고 긁으면 피가 나오는 證을 달한다. 肝經의 血熱과 脾經의 濕熱, 肺經의 風熱이 肌部에 얽혀서 생긴다. 처음 좁쌀알 같은 것이 생기며 가렵다. 밤에 더 甚하다. 긁으면 진물이나면서 짓물러 헌데가 된다. 온몸에 퍼질 수 있다. 오래되면 더 甚해져서 가려움증이 더하고 가슴이 煩躁不安하여 잘 자지 못하고 목이 마르며 大便이 굳어지는 등의 症狀들이 나타날 수 있다.

火赤瘡

불에 덴 것처럼 물집이 생기고·살갗이 벌겍게 되며 여러 가지 皮疹이 나타나며 속에 濕熱이 있는 데다 風邪가 侵入하여 생긴다.

좁쌀 크기로부터 콩알크기에 이르는 各異한 크기의 물집과 함께 紅斑, 丘疹, 두드러기, 고름집, 피

물집, 색소침착 등 여러 가지 皮疹이 어깨, 엉덩이, 팔다리 등에 생기며 몹시 가렵고 對稱性이다.

狐尿刺

웅저의 하나. 螻蟻벌레의 分泌物에 의하여 생긴다. 처음에는 손과 발에 紅紫色의 斑點이 생기고 皮膚가 마르며 붓고 화끈화끈 달아 오르면서 아파서 자지 못한다. 10餘日이 지나면 곪아 터져서 瘡口가 생긴다.

14. 漢方外科⁷⁾

漆瘡

原因: 漆毒에 接觸되어 肺氣가 收斂되므로 皮膚呼吸을 하지 못하여 發生된다.

發生部位: 皮膚에서 發生된다.

證狀: 처음에는 搔痒하여 긁으면 癩疹과 같이 나타나고 顔面이 붓는다.

또한 紅色을 띠고 全身에 번지면서 發熱 疼痛 搔痒한다.

診斷: 癩疹과 같은 것이 皮膚에 나타나고 斑疹이 潰爛되면 滲出物이 흐르면서 疼痛한다. 甚하면 癩瘡과 같고 寒熱이 往來한다. 또한 部分的으로 潰爛이 되지 않는 곳은 紅色의 斑疹을 나타내며 搔痒한다. 이 疾患은 潰爛될 때 瘡腫을 形成한다.

火赤瘡

原因: 心火의 作用이나 酷暑에 感觸되어 熱邪가 肺에 伏結되기 때문이다.

證狀: 처음에는 작은 것은 黃實과 같고, 큰 것은 棋子大와 같다. 灼熱感이 있고, 간장 빛깔의 膿疱를 形成하고 赤色을 나타낸다.

診斷: 上體에 發生하는 것은 風熱이 旺盛하기 때문이며, 下體에 發生하는 것은 濕熱이 旺盛하기 때문이다. 全身에 灼熱感이 있고 疼痛하며 潰破되지 않았을 때는 堅硬하지 않고 膿疱가 潰爛되면 黃色의 滲出物이 排出되나 惡臭가 없다.

血風瘡

原因: 1) 過度한 飲酒를 하였거나 肝脾의 濕熱이 鬱結되어 있을 때 風邪가 皮膚에 侵犯하여 肺經에 癢結되기 때문이다.

2) 風熱, 濕熱, 血熱 등이 서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證狀: 粟米狀과 같고 搔痒이 極甚하며, 抓破하면 滲出物이 흐르고, 皮膚가 潰爛되고 肌肉이 腐蝕된다.

診斷: 煩躁口渴하고 搔痒이 낮보다 밤이 더甚하다. 時日이 오래도록 經過되어 風邪가 肌肉에 있을 때는 熱로 말미암아 血液이 消耗되어 더욱甚하고 잠을 자지 못하며 心煩하고 便秘가 되며, 咽乾하나 渴症은 없다. 이것은 心燥로서 血液이 없어진 것이다.

狐尿刺

原因: 螳螂이 여름철에 交媾할 때 精汁이 手足이나 皮膚에 接觸이 되어 發生하다.

證狀: 처음에는 紅紫色을 띤 斑點이 생기고 皮膚가 乾燥하고 腫大되며 灼熱感이 있고 疼痛하고 不眠한다. 10餘日이 經過되면 斑點 部位가 潰爛되어 膿水가 排出되고 灼熱이 甚하면서 疼痛한다.

IV. 總括 및 考察

皮膚에 關한 黃帝內經에 나타난 것을 보면 痿論⁹⁾ 등에서는 肺臟이 身體의 皮毛를 主管하며 五臟生成論¹⁰⁾에서는 肺의 精氣가 皮毛를 生養시켜 肺之華가 皮膚에 發現한다고 했다. 또한 皮膚論⁹⁾에서는 皮는 脈의 部分으로서 邪氣가 皮膚에 있을 때 腠理가 열려서 邪氣가 絡脈으로 들어가며 邪氣가 旺盛하면 經脈으로 經脈에서는 臟腑로까지 繼續 들어가 結局은 大病을 만든다고 하였고 本藏篇¹⁰⁾에서는 衛氣가 皮膚 分肉之間에 循環하

며 體溫 調節 및 汗孔開合을 主管한다고 했다. 이러한 內容들은 皮膚와 肺의 密接한 關係를 說明한 것이며^{9, 10)}, 衛氣의 盛衰에 따라 皮膚 汗孔開合이 決定되면 邪氣의 進退 與否도 決定되어 疾病 發生까지도 이에 의한다는 것이다¹⁰⁾.

王²³⁾은 肉과 皮部分은 肺經에 屬한다고 하며 肺氣가 皮毛를 主管하며 肺氣가 充實하면 皮毛가 榮華롭고 皮毛가 折枯하면 肺氣 絶하며 皮毛에 行하여 肌肉을 따뜻하게 하며, 充進되면 皮焦하여 津液이 마른다고 했다.

吉¹¹⁾은 人體內에 外部 物質이 侵入 했을 때 人體는 自己와 非自己를 우선 區別하고 非自己에 對해 生體가 反應 하는 것을 免疫反應이라 했고, 金²⁾은 免疫反應 機制를 體液性免疫와 細胞性免疫으로 分類했고, 體液性免疫은 血液內에 存在하는 抗體에 의해 媒介 되는 것이며, 細胞性免疫은 胸腺의 存在下에서만 成熟하는 T림파구에 의해 媒介 되고 遲延反應을 일으킨다고 說明하고 있다.

以上에서 皮膚之間에 循環하는 衛氣 盛衰에 의한 邪氣進退를 體內 免疫反應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으며, 衛氣는 免疫系統의 防禦機能을 가진다고 본다¹¹⁾.

漆瘡에 對해 巢²⁰⁾, 吳²⁵⁾, 陸²⁷⁾, 許⁸⁾ 등은 漆에 毒이 있으며 사람은 先天의으로 漆을 싫어하고 漆에 接觸 되면 곧바로 面痒이 發하며 점차 全身으로 퍼지며 가렵고 瘡證이 생겨 부스럼 모양이 粟杏과 같으며 膿도 생기고 아프다고 한다.

陳³⁰⁾은 漆毒之性이 辛熱한毒이므로 사람의 腠理가 不密할 때 中毒되어 가려움증을 誘發하기도 하지만 점차로 全身 皮膚에 瘡疹을 만들고 爛斑과 그 斑疹에서 滲出物도 생긴다. 하지만 頑風이나 癖과는 다르며 漆毒이 甚하면 寒熱이 交作하며 再發되기도 쉽다고 했다.

中醫外科學²⁰⁾에서는 漆瘡이 現代醫學的으로 接觸性皮膚炎으로 불리우며 皮膚에 某種의 物質이

接觸 되었을 때 發生하는 過敏反應으로 接觸 部位에 急性 皮膚炎이 나타나며 膏藥風이나 馬桶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病因病理적으로 볼 때 皮膚가 過敏狀態에 놓여 있어 腠理가 緻密하지 못할 때 某種의 物質이 接觸되어 皮膚가 損傷을 받고 邪熱이 氣血과 相博되어 漆에 의한 接觸皮膚炎이 發生한다고 한다. 症狀的 側面에서 보면 症狀 發願 數日 前에 皮膚炎을 일으킬 수 있는 物質에 接觸 된 적이 있어야 하며, 처음 接觸後 4-5日 이상 潛伏期를 거친 후 再次 接觸 되었을 때에 數時間內에 皮膚에 發疹이 나타나며 特히 얼굴이나 腕關節部位 등 露出된 곳에 症狀이 好發한다고 한다.

蔡⁷⁾는 漆瘡의 原因은 漆毒에 接觸되었을 때 體內的 肺氣가 收斂되지 못하여 發病한다고 했다. 楊²³⁾은 漆瘡의 原因을 漆毒이외에 脾氣의 虛弱과 體內 濕熱鬱滯로 보았다.

顧¹⁸⁾는 狐尿刺를 漆瘡과 類似한 病으로 보았으며 千金翼方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狐尿刺는 螳螂의 精汁의 毒氣가 사람의 손이나 발에 接觸 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狐尿刺에 對한 原因 症狀을 謝¹⁹⁾, 蔡⁷⁾, 東¹⁾, 陸²⁷⁾ 등은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螳螂이 盛夏의 季節에 交媾할 때 精汁이 分泌되고 그 精汁이 마르면서 毒性을 띄게 되며, 사람의 手足을 잘못하여 接觸하게 되면 皮膚에 紅紫色을 띤 斑點이 생기고 皮膚에 灼熱感和 疼痛이 있고 不眠症이 나타나며 十餘日이 經過 되면 斑點 部位가 潰爛 되고 膿水가 흐른다.

以上에서 漆瘡이나 狐尿刺의 原因은 漆의 辛熱한毒^{1, 7, 8, 19, 25, 27, 29, 30)}에 의해 或은 螳螂 精汁의 毒性^{1, 7, 19, 27)}이 皮膚에 接觸되어 理가 不密하여 全身에 諸症狀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濃度の 刺戟을 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皮膚炎을 일으킬 수 있는 原發性 接觸皮膚炎과 類似하다고

볼수있다.

血風瘡에 대해 巢²¹⁾는 氣血과 風濕이 相博하여 熱氣가 생겨 그로 인해 皮膚에 瘡證이 나타나며 出血될 때 血瘡이라 했고, 李²⁶⁾는 血에 風熱이 鬱滯되어 血燥 하므로 搔痒症이 發하고 굵어서 疼痛과 流水가 흐를 때를 血風瘡이라 名하며 內證으로는 嘔熱, 盜汗, 惡汗, 少食, 體倦 등이 나타난다고 했다.

陳³⁰⁾은 風熱, 濕熱, 血熱 세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發病한다고 했다.

陸²⁷⁾은 肝, 脾 二經에 濕熱 外邪가 侵襲하여 皮膚에 머무름에 肺經之氣가 鬱滯되어 生瘡한다고 했다. 血風瘡의 症狀에 대하여 蔡⁷⁾, 陸²⁷⁾, 吳²⁵⁾는 몹시 가렵고 굵으며 피가 나오며 처음에는 조그만 皮疹이 생기며 진물도 나고 온 몸에 퍼질 수 있고 口渴 煩躁症까지도 나타난다고 했다.

이러한 血風瘡의 病因을 脾氣, 肝氣, 肺氣의 體內 循環不理와 外邪가 複合的 要因으로 作用하여 皮膚疾患이 發病^{1, 20, 25, 27)} 되고 衛氣가 免疫系統의 防禦 機能을 가진다고 보면, 外界物質이 體內에 들어와 抗原으로서 皮膚에 浸透하는 것으로 이는 上皮에서 運搬蛋白에 結合하고 完全한 抗原으로 되어 랑겔한스細胞에 接觸하게 되고 그 후 抗原에 接觸된 胸腺 림프구를 周圍의 림프절에서 核分裂하여 이중 일부의 細胞가 記憶細胞로 남아 있다가 再次 抗原이 皮膚에 浸透하게 되면 記憶細胞가 이를 感知하고 여러 化學 媒介體를 내어 皮膚炎을 일으키는 알레르기性 皮膚炎¹⁾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火赤瘡의 發生要因으로 陸²⁷⁾, 吳²⁵⁾는 酷暑時氣에 火邪가 肺에 入한 후 心火妄動케하여 發한다고 했고, 症狀에 대해서 蔡⁷⁾, 祁²⁸⁾, 陸²⁷⁾, 吳²⁵⁾는 皮膚가 發赤, 皮疹되며 全身에 灼熱感和 疼痛 或은 滲出物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火赤瘡이 光알레르기 反應에 의한 皮膚

炎과 恰似한지의 與否는 차후 자세한 文獻의 考察이 必要하다고 본다.

以上에서 血風瘡과 火赤瘡, 漆瘡, 狐尿刺 등의 發病原因 및 症狀과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原發性接觸皮膚炎과 알레르기성 皮膚炎의 相互聯關性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文獻的, 臨床的, 實驗的 研究를 통해 보다 확실한 相互關係를 밝히는 것이 重要하다고 思慮된다.

V. 結 論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漆瘡, 狐尿刺, 血風瘡 등이 接觸性 皮膚炎의 범주에 속한다.

2. 原發性 接觸 皮膚炎은 漆瘡, 狐尿刺 등과 類似하며 알레르기성 皮膚炎은 血風瘡과 類似하다.

3. 原發性 接觸 皮膚炎의 原因은 機械的 摩擦, 땀, 膿, 化學物質, 藥品, 金屬, 植物, 고무등 一定한 濃度의 刺戟에 의해 發病하며, 漆瘡 및 狐尿刺의 原因을 漆의 辛熱火毒性和 螻蟻 精汁의 毒性에 의한 皮膚 接觸으로 發病한다.

4. 알레르기성 皮膚炎의 原因을 外部 物質의 體內 抗原 抗體 反應에 의한 것이며, 血風瘡은 衛氣의 防禦 機能 失調로 인한 脾, 肝, 肺經의 氣不利로 發生 한다.

5. 外界 物質의 接觸에 의하여 發病되는 皮膚疾患의 豫防은 衛氣의 防禦 機能을 높이는 것이다.

以上에서 血風瘡, 漆瘡, 狐尿刺의 發病原因, 症狀을 통해 原發性 接觸 皮膚炎과 알레르기성 皮膚炎의 相互 關係를 찾아 보고자 했으며, 火赤瘡이 光알레르기 反應에 의한 皮膚炎과의 恰似 與否는 此後 자세한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參考文獻

1. 科學百科辭典綜合出版社篇: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 p.989, 1045, 1173, 1180, pp.1194-1195, 1990.
2. 김구자: 生理學, 서울, 高麗醫學, pp.60-63, 1986.
3. 金昌鎭: 病態生理學, 서울, 癸丑文化社, p.419, pp.745-746, 1988
4. 大韓病理學會篇: 病理學, 서울, 高文社, pp.1140-1141, 1990.
5. 이유신: 臨床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14-19, 1989.
6. 丁奎萬: 알레르기와 漢方, 서울, 第一路, pp.120, 121, 1990.
7. 蔡炳允: 漢方外科學, 서울, 高文社, p.307, 308, 310, 1987.
8.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大成文化社, p.504, 1985.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p.24, 39, 92, 130, 142, 198, 248, 1981.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p.213, 1981.
11. 吉村星: 免疫學에 關한 文獻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8.
12. 곽호외 2인: 알로에에 의한 接觸 皮膚炎 1 例, 大韓皮膚科學會, Vol.29 No.4, pp.518-521, 1991.
13. 김수남외 1인: 數種 國産化粧品이 座瘡 發生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大韓皮膚科學會, Vol.16 No.4, pp.273-278, 1978.
14. 김제곤외 3인: 抗히스타민이 貼布試驗 反應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大韓皮膚科學會, Vol.19 No.3, pp.271-275, 1981.

15. 김홍직외 15인: 韓國에서의 外用 藥劑에 의한 알레르기性 接觸 皮膚炎의 臨床的 研究, 大韓皮膚科學會, Vol.29 No.1, pp.32-40, 1991.
16. 유병국외 2인: 外用藥劑에 의한 알레르기性 接觸 皮膚炎, 大韓皮膚科學會, Vol.23 No.4, pp.447-455, 1985.
17. 은희철외 1인: 接觸 皮膚炎 患者에 있어서 化粧品 關聯 抗原의 貼布試驗에 關한 研究, 大韓皮膚科學會, Vol.22 No.2, pp.187-190, 1984.
18. 顧伯華: 實用中醫外科學,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65-467, 1985.
19.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p.393, 1985.
20. 上海中醫學院篇: 中醫外科學, 臺北, 商務印書館, pp.108-110, 1985.
21.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集文書局, p.353, 354, 1982.
2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086, 1986.
23. 楊醫伍: 中醫學問答, 서울, 人民衛生出版社, p.395, 1985.
24.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翰成社, p.482, 1982.
25.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成文化社, p414, 417, 422, 1983.
26. 유정재외 1인: 中醫免疫, 北京, 重慶出版社, pp.8-37, 46-62, 1983.
27. 陸青節: 萬病醫學顧問, 臺北, 東方書店, pp.776-778, p.1189, 1978.
28.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p280, 281, 1984.
29. 祁 坤: 外科大成,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335, 1985.
30. 陳實功: 外科鄭宗, 서울, 一中社, p.249, 259, 1989.
31. Angelini G, Vena GA, Meneghini CL: Allergic contact dermatitis due to some medicaments, contact dermatitis 12:263-269, 1985.
32. Thomas P. Habif: Clinical Dermatology, Toronto, The C.V. mosby company, pp.54-64, 1985.